

한국 모유 권장 운동의 기원과 전개

박승만**

소비자 운동에서 의료화와 상품화의 매개로*

초록 수유는 무엇을 먹이는데 따라 모유 수유와 분유 수유로 대별되며, 여기에는 자연적인 모유와 인공적인 분유의 이항대립이 따라붙는다. 모유는 자연적이고 영양이 풍부하며, 분유는 인공적이고 영양이 비교적 부족하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러한 인식은 빠르면 1980년대, 늦으면 2000년대 이후에야 등장했으며, 그 이전에는 오히려 분유를 더욱 신뢰하는 이도 적지 않았다. 이항대립의 진릿값과 무관하게, 모유와 분유를 둘러싼 인식이 조형되는 역사적 과정을 살펴야 하는 까닭이다.

이 글은 이러한 변화의 한 계기가 되었던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모유 권장 운동에 주목하고, 그것이 한국의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역사적 과정을 추적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주장한다. 하나, 한국의 모유 권장 운동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서구 사회에서 진행된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의 모유 권장 운동, 그리고 이에 따라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의료계의 모유 옹호에서 비롯하였으며, 한국 내 소비자 단체와 의료인 단체에 의해 한국으로 매개되었다. 둘, 한국 모유 권장 운동의 성격은 서구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보호에서 의학적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로 이동하였고, 이후 산후조리원을 통해 모유 수유의 상품화로 이어졌다.

주제어 모유 권장 운동, 모유, 분유,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의료화, 상품화

* 이 논문은 반석기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다.

** 가톨릭대 인문사회학과의 연구강사

1. 들어가는 말

2020년 말, 「산후조리원」이라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방영되었다. 드라마는 영화 「설국열차」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모유 수유 여부에 따라 산모의 등급이 나뉘는 과정을 재현한다. 여기에서 ‘완모 직수’ 즉 젓병을 사용하지 않고 아기에게 직접 모유를 수유하는 산모는 머리 칸에 탄 승객으로, ‘완분’ 즉 분유 수유만으로 아기를 키우는 산모는 꼬리 칸에 탄 승객으로 묘사된다. 극적 과장일까. 그렇지 않다. 모유 수유를 권장하고 분유 수유를 깎아 내리는 일은 현실에서도 수없이 반복된다. 이른바 ‘모유 수유 서약서’가 대표적이다. 공립 의료기관은 물론, 사립 의료기관과 인터넷 육아용품 쇼핑몰까지 모유 수유 서약서의 작성을 사실상 강권한다. 드라마를 드라마로만 볼 수 없는 까닭이다.

이러한 인식의 이면에는 모유와 분유의 이항대립이 놓여 있다. 모유는 자연적이고 영양이 풍부하며 모성이 담긴 것이지만, 분유는 인공적이고 영양이 부족하며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대립 구도이다.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어디건 한 권은 있다는 스테디셀러이자 베스트셀러, 『삐뽀삐뽀 119 소아과』의 저자 하정훈은 모유 수유가 아기에게는 높은 지능과 건강을, 산모에게는 건강과 날씬함을 가져다준다고 쓴다. 하정훈의 어조는 단호하다. 그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될 수는 없”듯, “분유는 모유의 껍질만 흉내 낼 뿐이지 모유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¹

그러나 과거로 눈을 돌리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박완서(朴婉緒, 1931~2011)는 1977년에 발표한 「버스 속에서」라는 수필에서 “젊은 엄마들 [이] 다만 인공영양을 더 좋은, 더 과학적인 육아의 방법으로 알고 있”으며, “모유로 기른 이들[을] 되는대로 비위생적으로, 그야말로 거저먹기로 아이

1 하정훈(2021), 『삐뽀삐뽀 119 소아과』 12판, 서울: 유니책방, p. 234.

를 기른 줄 알고 경멸감”을 드러낸다고 썼다.² 박완서의 수필 역시 과장이 아니었다. 1982년 주부클럽연합회가 서울 시내 여성 양육자 67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분유에 고유한 영양 성분이 있다고 믿는 이가 전체의 37.1%, 분유를 먹인 아이가 더 튼튼하거나 똑똑하다고 믿는 이가 각각 전체의 29.0%, 17.6%에 달했다.³

당대의 광고와 의학 논문은 이러한 인식을 재생산하고 확대했다. 여러 분유 회사는 자사 제품을 먹고 자란 아기가 우량아 대회를 휩쓸었다며 제품의 우수성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때로는 “모유보다 더 좋”다는 노골적인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⁴ 의학자 일부도 여기에 동조했다. 분유 회사의 연구 수주를 받은 여러 의학자는 분유를 먹은 아기의 “발육에 관한 성적[이] 양호하여 모유 영양이나 타대조아보다 좋았다”고 보고했다.⁵ 이와 같은 일련의 자료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모유와 분유를 향한 인식이 지금과 판이하였음을 보여준다. 전근대적이고 비과학적이며 영양이 부족한 모유와 현대적이고 과학적이며 영양이 풍부한 분유의 이항대립은 오늘날 통용되는 상식의 거울상에 가깝다.

이 논문은 이러한 변화의 한 계기인 모유 권장 운동에 주목하고,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것이 시작되고 전개되는 과정을 드러내려 한다. 한국에 앞서 유사한 변화가 일어났던 서구권의 여러 연구자는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가 진행했던 모유 권장 운동, 그리고 이후 이러한 흐름에 합류한 의료인 단체의 활동에 주목한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먼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유니세프와 ‘빈곤과의 전쟁’(War on Want) 등이 주도했던

2 박완서(2015), 「버스 속에서」, 『나의 만년필』(박완서 산문집 2), 파주: 문학동네, pp. 24-26.

3 「젊은 엄마들 우유 과신 심하다」, 『경향신문』, 1982년 10월 27일, 11면.

4 「남양분유 광고」, 『동아일보』, 1969년 5월 14일, 3면; 「메이지분유 광고」, 『조선일보』, 1960년 11월 24일, 3면.

5 이현숙·권순자(1969), 「국산우유제품에 의한 영양가 및 발육에 대한 임상적 연구」, 『소아과』 12(2), p. 104.

모유 권장 운동은 분유 수유를 우위에 두던 이항대립의 구도에 제동을 걸고, 모유 수유의 가치를 다시금 조명하는 계기로 작동하였다. 이들 단체는 네슬레로 대표되는 분유 회사와 분유 수유의 정당성을 놓고 이른바 ‘모유 분유 논쟁’(breast-bottle controversy)을 벌였으며, 이는 세계 각국 정부에 모유 수유의 권장을 촉구하는 국제적 흐름으로 이어졌다.⁶

여러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가 시작한 모유 권장 운동의 흐름은 의료인 단체의 참여와 함께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분유의 우월함을 옹호하던 의료인 단체는 사회적 변화에 조응하여 운동에 동참하였고, 이제는 반대로 모유의 유익함을 보여주는 연구를 내어놓았다. 그리고 이에 더해 수유를 의료인의 지도가 필요한 의료 행위로 재규정함으로써, 모유 권장 운동을 의료인의 운동으로 바꾸려 하였다.⁷

이와 같은 서구권의 변화는 한국의 사례를 분석하는 실마리가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유니세프 등은 처음부터 여러 국가의 법과 정책에 개입하려고 했으며, 서구권의 의학자가 생산한 새로운 의학 지식 역시 한국을 포함한 비서구권 사회에 강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그러한 면에서 서구권의 사례는 단순한 이론적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궤적에 영향을 준 역사적 요인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서구권의 흐름은 무엇을 매개로 한국에 도입되었으며, 한국이라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 또 어떻게 전개되고 변용되었을까. 이를 밝히기 위해 아래에서는 먼저 모유 권장 운동이 시작되기 전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고,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 그리고 서구권 의료

6 John Dobbing (1988), *Infant Feeding: Anatomy of a Controversy, 1973-1984*, London: Springer; Penny Van Esterik (1989), *Beyond the Breast-Bottle Controversy*,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Penny Van Esterik (2013), “The Politics of Breastfeeding: An Advocacy Update”, *Food and Culture: A Reader* (eds. by Carole Counihan and Penny Van Esterik), 3rd ed., London: Routledge, pp. 510-530.

7 Penny Van Esterik (1989), pp. 111-152; Linda M. Blum (1999), *At the Breast: Ideologies of Breastfeeding and Motherhood in the Contemporary United States*, Boston: Beacon, pp. 19-62; Joan B. Wolf (2011), *Is Breast Best?: Taking on the Breastfeeding Experts and the New High Stakes of Motherhood*,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pp. 1-20.

인 단체의 모유 권장 운동이 차례로 한국에 들어와 진행되는 과정을 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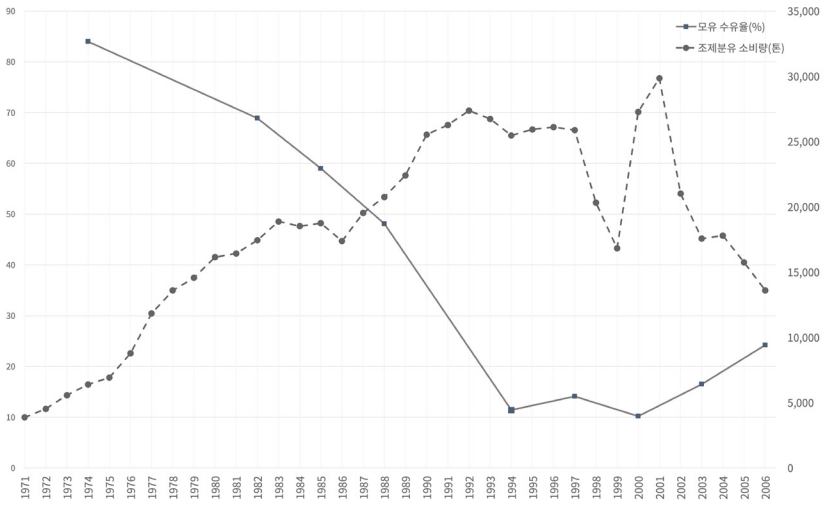
2. 분유 수유의 확산: ‘모유보다 좋은 분유’, 1960~1970년대

한국의 모유 수유율은 1970년대를 거치며 빠르게 감소하였고, 이와 함께 조제분유 소비량은 급격히 증가하였다(그림 1). 이는 보통 여성 취업의 증가에서 비롯한 현상이라 설명된다. 출퇴근에 따라 모유 수유가 힘들어지면서, 분유 수유율이 높아졌다는 논리이다. 실제로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며 여성 취업률은 빠르게 증가하였다.⁸ 그러나 이것이 분유 수유의 증가를 온전히 설명해주지는 않는다. 여성 취업률이 더 높은 동시대 서구 사회 또는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분유 수유율이 오히려 더 낮기 때문이다.⁹ 이는 취업률이 수유 양상을 결정하는 유일한 변수가 아니며, 다른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당시 수유 양상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여성 취업률 외에 세 가지를 더 짚을 수 있다. 하나는 분유를 향한 호의적인 시선이다. 분유 산업에 관한 이은희의 선행 연구가 밝힌바, 분유는 개항 이후 한국에 도입되던 순간부터 아기를 위한 영양식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분유 회사가 시행한 전략적

8 1960년 당시 19.4%이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75년 30.9%로 증가하였다[장하진·장미경·신경아·오정진(2001), 『근로 여성 50년사의 정리와 평가』,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pp. 10-13].

9 대표적으로 20세기 후반 미국의 경우, 여성 취업률과 모유 수유율이 함께 증가하였다. 1970년만 해도 25%가 채 되지 않던 모유 수유율은 1978년에 46%, 1981년 58% 수준으로 늘어났다[Rima D. Apple (1987), *Mothers & Medicine: A Social History of Infant Feeding, 1890-1950*, Wisconsi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p. 179]. OECD 자료에 따르면, 여성 취업률은 1970년 43.3%, 1978년 50.0%, 1981년 52.1%로 증가했다[OECD, Labour Force Statistics, 2022년 2월 10일. <https://www.stats.oecd.org>].



출처: 모유 수유율은 가족계획연구원과 그 후신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출산력 및 가족 보건 실태 조사(1974, 1982, 1985, 1988, 1994, 1997, 2000, 2003, 2006)를 참고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집계 방식의 변화로 자료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조제분유 소비량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한국유가공협회, 유제품 수급 통계, 한국유가공협회 웹페이지, 2021.10.26. http://www.koreadia.or.kr/sub03/i_3.html

[그림 1] 모유 수유율, 조제분유 소비량 변화, 1971~2006

인 홍보의 결과였다.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러 분유 회사는 높은 칼로리를 반복해서 강조했다. 이러한 전략은 일제강점기는 물론, 해방 이후에도 계속되었다.¹⁰ 이를테면 베비락 분유는 “480칼로리의 영양가”가 있다는 점을 내세웠고, 대한식품공사는 아예 분유 이름을 ‘비만’으로 지을 정도였다.¹¹

분유의 영양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유 회사는 광고 외에도 다양한 근

10 이은희(2019), 「일제강점기 우량아 양육과 우유, 연유, 분유의 상륙」, 『경제사학』 43(3), pp. 418-423; 이은희(2021a), 「해방 이후 구호분유의 쇄도와 육아용 분유로의 전용(1945~1965)」, 『학림』 47, pp. 297-301.

11 「베비락분유 광고」, 『동아일보』, 1959년 5월 19일, 3면; 「비만분유 광고」, 『동아일보』, 1964년 7월 29일, 3면.

거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우량아 대회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당시 우량아 대회는 전 국민적 행사였다. 문화방송, 동양방송 등이 대회 실황을 생중계했고, 수상자는 때로 영부인 육영수(陸英修, 1925~1974)가 참석한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표창을 받기도 했다.¹² 여러 분유 회사는 우량아 대회에 쏠린 높은 관심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신성산업 등을 비롯한 여러 분유 회사는 대회 수상자 대부분이 자사 분유를 섭취했음을 강조했고, 한국비락, 남양유업 등은 이에 더하여 자사 우량아 대회를 따로 개최하기도 했다.¹³ 우량아 대회는 분유의 높은 영양을 눈으로 증명하는 장이었다.

또 하나는 의학적 권위였다. 분유 회사는 광고에 저명한 의학자의 이름을 함께 신는 한편,¹⁴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가톨릭대학,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및 국립의료원 등 한국 유수의 의료기관에 분유의 영양을 증명하는 연구를 의뢰하기도 했다.¹⁵ 분유 회사와 이들 의료기관 사이에 모종의 대가가 오갔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논문에 이해관계 충돌을 보고하지 않던 시대이기에, 연구의 배경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없는 탓이다. 다만 남양유업과 이후 매일유업으로 사명을 변경하는 한국낙농유업의 지원을 명

-
- 12 「신나는 행사 갖가지: 어린이회관 상량, 가장 행렬 인기」, 『경향신문』, 1970년 5월 5일, 7면; 「어린이는 나라의 새싹, 구김살 없게」, 『매일경제』, 1974년 5월 4일, 7면; 「우량아 선발대회」, 『조선일보』, 1974년 5월 4일, 5면; 「우량아 콘테스트」, 『조선일보』, 1974년 5월 5일, 5면.
- 13 이은희(2021a), pp. 301-303; 이현진(2012), 「우량아 선발 대회와 운동회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아동과 아동기 담론」, 『아동교육』 21(2), pp. 271-273; 「신성산업 분유 광고」, 『경향신문』, 1965년 6월 18일, 3면; 「남양분유 광고」, 『경향신문』, 1969년 5월 14일, 3면.
- 14 예를 들어 1956년의 비락분유 광고에는 당시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여자 의과대학병원에서 소아과 과장을 지내던 이국주(李國柱), 조동수(趙東秀, 1908~1994), 김영택(金榮澤, 1912~2002)의 이름이 기재되었다[「비락분유 광고」, 『경향신문』, 1956년 5월 19일, 1면].
- 15 이현숙·권순자(1969), pp. 99-104; 윤병해·박철구·김중식 등(1971), 「국산분유제품에 대한 임상적 관찰」, 『소아과』 14(8), pp. 483-488; 이동환·윤종구·고광욱(1978), 「매일분유 G의 만삭신생아에 대한 수유 성적」, 『소아과』 21(4), pp. 32-37; 정용운·김효섭·이병철 등(1979), 「매일분유 G-80의 저출생체중아에 대한 수유성적」, 『소아과』 22(11), pp. 26-30.

기한 일부 논문의 사례로 볼 때, 분유 회사가 연구에 소요된 비용 상당수를 담당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¹⁶ 이들 연구진은 분유와 모유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거나 어떤 면에서는 분유가 더 낫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이는 다시 광고에 활용되었다.

분유 수요의 증가에 영향을 준 두 번째 요인은 국산 분유 산업의 성장에 따른 경제적 장벽의 완화였다.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수입 조제분유는 당시 높은 가격 탓에 상류층이 아니면 이용하기 힘들었다.¹⁷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해방 이후 구호 분유를 원료로 한 국산 소분분유가 출시되면서 조금 낮아졌다. 소분분유는 미국이나 국제기구에서 드럼통에 담아 보낸 구호 분유를 조금씩 덜어다가, 설탕이나 비타민을 임의로 섞어 만든 제품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유아용 분유가 아니었지만 제조 과정의 특성상 저렴할 수밖에 없었고, 가격 경쟁력에 힘입어 부단히 팔려나갔다.¹⁸ 소분분유의 인기는 1966년 이른바 ‘가짜 분유’ 파동을 거치며 비로소 꺾였다.¹⁹

다행하게도 대안이 없지는 않았다. 때마침 국산 조제분유가 출시된 덕분이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1962년 「낙농진흥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다섯 가지 세부 사업을 설정하였다. 수입 유제품의 국산화는 당시 추진된 세부 사업의 하나였다. 수입 조제분유의 높은 가격으로 인한 외화 유출을 우려한 결과였다.²⁰ 유제품의 국산화는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었고, 그 결과 1965년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서울분유를 시작으로, 1967년 남양유업 남양분유, 1969년 대한식품 비만분유, 1974년 한국낙농유업 매일분유 Dia-G 등이 차례로 출시되었다. 이렇게 출시된 국산 조제분유는 값비싼 수입 조제

16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진의 경우 “지원을 하여 준 …… 남양(분유)유업회사에 사의를 표”하였고, 서울대학교 연구진은 “매일유업G를 한국낙농유업주식회사로부터 제공”받았음을 명기하였다[이현숙·권순자(1969), p. 104; 이동환·윤중구·고광욱(1978), p. 32].

17 이은희(2019), pp. 423-425.

18 이은희(2021a), pp. 293-295.

19 이은희(2021b), 「박정희 시대 유아용 분유의 국산화」, 『동방학지』 196, pp. 464-466.

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9), 『한국농정50년사』 2권, 서울: 농림부, pp. 1813-1815.

분유의 대안으로 기능하며, 분유 수유의 접근성을 낮추는 데에 기여하였다.

분유 소비를 촉진했던 세 번째 요인은 시설 분만의 증가였다. 가정의 일이던 출산은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며,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속히 의료화되었다. 1962년부터 1964년까지의 조사에서 15.6%에 지나지 않던 도시 지역의 시설분만을, 즉 조산소나 병의원 등을 이용한 분만의 비율은 1980년이 되면 78.8%까지 증가했다. 농촌의 시설분만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추세로만 보면 1968년 당시 7.7%이던 수치가 1980년 들어 26.5%까지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가속화하고 있었다.²¹

출산의 의료화가 중요한 이유는 시설 분만이 대개 분유 수유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수유 양상을 향한 무관심 탓에 통계가 작성되지 않아 부득이 1984년의 조사를 참고하면, 서울시 종합병원 42개소 가운데 모유 수유를 허용하는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했다.²² 여러 병의원은 구조적 한계를 들어 모유 수유를 거부했다. 분만 직후 아기는 신생아실로 산모는 회복실로 옮겨지는데, 모유 수유를 하려면 그때마다 간호사가 산모에게 아기를 데려다줘야 하니 일이 늘어난다는 이유였다.²³

분유 회사의 집중적인 로비는 시설 분만과 분유 수유의 연관성을 높인 또 다른 원인이었다. 분유 회사는 산부인과 병의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분유를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했고, 아기 수첩과 책자, 달력은 물론 인큐베이터와 같은 의료 기기나 회식비, 휴가비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판촉 활동 속에서, 의료진은 산모에게 분유 수유를 권했다.²⁴ 분유 수유를 자주 하다 보면 모유 수유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점에

21 신재철·김영찬·홍성봉(1989), 「한국의 분만양상에 관한 고찰(III): 분만장소 및 그 개조자의 변천」, 『대한산부회지』 32(5), p. 600.

22 「김모임 의원, 김의숙 학장 종합병원산부인과 실태조사 모유 권하는 병원 드물다」, 『동아일보』, 1984년 1월 6일, 7면.

23 「학력 높을수록 모유 육아 많다」, 『조선일보』, 1979년 8월 12일, 5면; 「신생아 초유 먹이기 병원에서 격리로 불가능」, 『조선일보』, 1990년 11월 29일, 11면.

24 「병원 99% 신생아에 분유 급식」, 『조선일보』, 1990년 11월 3일, 11면; 「모유 먹이는 병원

서, 이는 향후의 고객을 확보하는 유력한 수단이었다. 실제로 남양유업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판촉을 성공의 열쇠로 지목하기도 했다.²⁵ 활동가 아넬리 알랭(Annelies Allain, 1945~)의 표현을 빌리면, 분유 회사와 의료인 간의 ‘위험한 연합’(unholy alliance)이 분유 수유를 유도한 셈이었다.²⁶

분유 수유율이 증가하고 모유 수유율이 감소하는 동안, 정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정부는 1970년을 전후로 잠깐 모유 수유율에 관심을 기울였다. 1970년 국립가족계획연구소가 발표한 『1968년도 한국 부인의 출산력 및 가족계획 실태조사 보고』나 1977년 경제기획원과 가족계획연구원이 공동 발표한 『1974년 한국출산력조사: 일차보고서』가 대표적이었다.²⁷ 1968년에는 모유 수유 여부와 수유 기간, 자녀 수 등이 조사되었고, 1974년에는 이에 더해 수유부의 연령, 거주 지역, 교육 수준 등이 추가로 조사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1974년의 조사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수유에 관한 인구학적 연구였다.

그러나 정부의 관심은 모유 수유의 장려가 아닌 다른 곳에 놓여 있었다. 가족계획 사업의 이론적 기반을 연구하던 가족계획연구원은 모유 수유의 피임 효과에 주목했다. 만약 모유 수유로 자연스럽게 무월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비용 투자 없이도 가족계획 사업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터였다.²⁸ 정부의 의도는 곳곳에서 드러났다. 1968년의 보고에서 모유 수유

0.9%], 『경향신문』, 1990년 11월 5일, 19면.

25 「산업인맥 (226) 식품공업 (31) 분유업계 (2)」, 『매일경제』, 1975년 7월 10일, 5면.

26 Penny Van Esterik (2013), pp. 517-518에서 재인용.

27 고갑석·데이비드 스미스(1970), 『1968년도 한국 부인의 출산력 및 가족계획 실태조사 보고』, 서울: 국립가족계획연구소; 경제기획원·가족계획연구원(1977), 『1974년 한국출산력조사: 일차보고서』, 서울: 경제기획원.

28 당시에는 모유 수유가 월경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모유 수유가 무월경 기간을 연장하여 일종의 피임 상태를 유도한다는 사실은 1988년이 되어야 이른바 ‘벨라지오 합의’(Bellagio consensus)로 정식화되었다[Family Health International (1988), “Consensus Statement: Breastfeeding as a Family Planning Method”, *Lancet* 19(2), pp. 1204-1205].

현황은 “수유 및 산후 무월경 상태”라는 제목의 절에 배속되었고, 1974년의 보고에서도 “수정을 지연시키는 데 모유에 의한 양육 혹은 수유의 …… 가능성이” 탐구한다는 말이 서두를 장식했다.²⁹

모유 수유에 따른 피임 효과는 예상과 달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74년 이후에 시행된 1976년과 1978년의 출산력 조사 보고서에서는 모유 수유에 대한 서술이 다시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이다.³⁰ 이러한 상황은 1982년부터 다시 달라졌다. 『1982년 전국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의 발간과 함께, 1974년의 조사와 유사한 인구학적 분석이 다시 시작되었다.³¹ 1980년 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질서가 변화한 결과였다.

3. 모유 권장 운동의 시작: 세계 질서와 소비자 운동의 결합, 1980~1990년대 초반

1980년대부터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변화의 동력은 서론에서 언급한 모유 분유 논쟁이었다. 서구 사회에서 분유 사업은 1960년대 후반부터 맹렬한 저항과 공격에 직면하였다. 저항의 원천은 당대의 대항문화였다. 모든 기성 질서가 의문의 대상이 되었고, 의학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³² 새로운 양식의 대안 의료를 추구하는 이들이 나타났으며, 어떤 이들은 이러한

29 고갑석·데이비드 스미스(1970), p. 50; 경제기획원·가족계획연구원(1977), p. 130.

30 가족계획연구원(1978), 『197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계획 평가조사』,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가족계획연구원(1979), 『1978년 가족계획 및 출산력 실태조사』,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31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2), 『1982년 전국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서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32 Mike Saks (2003), “Medicine and the Counter Culture”, *Companion to Medicine in the Twentieth Century* (eds. by Roger Cooter and John Pickstone), London: Routledge, pp. 113-123.

맥락에서 병의원을 이용하지 않는 자연적인 임신과 출산, 양육에 눈을 돌렸다. 이들은 인공적인 분유에 대항하여 자연적인 모유 수유를 해야 하며, 이것이 의료인과 기업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길이라 주장했다. 여러 페미니스트도 여기에 가세했다. 남성 의사가 주도하는 의료에 반기를 들고, 자조 모임 등을 꾸려 자연적 치유로의 귀환을 실천하려던 이들이었다.³³

1970년대에 일어난 네슬레 불매 운동은 이러한 상황이 압축된 결과였다. 1974년 영국의 비정부기구 빈곤과의 전쟁은 『아기 살인자』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출간했다. 분유가 아기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분유 회사의 왜곡된 홍보와 달리, 오히려 저소득국 아기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주장이었다.³⁴ 실제로 저소득국에서는 살균 지침을 모르거나, 알아도 연료나 전기가 없어 불결한 물에 분유를 타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또 어떤 이들은 분윳값이 부담스러워 권장량보다 적은 양의 분유를 먹이기도 했다. 소책자의 파급은 적지 않았다. 스위스 베른의 제삼세계조사위원회(Arbeitsgruppe Dritte Welt Bern)는 소책자를 독일어로 번역하고, 여기에 『네슬레가 아기를 죽인다』(*Nestlé tötet Babys*)라는 더욱 강한 어조의 이름을 붙였다. 이에 네슬레가 소송을 걸었지만, 오히려 이는 문제를 널리 알려 불매 운동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³⁵

빈곤과의 전쟁이 시작한 네슬레 불매 운동은 다른 서구 국가로 급격히 퍼져 나갔다. 확산의 매개는 각국의 소비자 단체였다. 이들 단체는 초국적 기업의 횡포로부터 저소득국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세계 시민 모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호소했다. 국제단체인 국제유아식품 행동망(International Baby Food Action Network, IBFAN), 미국과 캐나다의 기업

33 Linda M. Blum (1999), pp. 42-45.

34 Mike Muller (1974), *The Baby Killer: A War on Want Investigation into the Promotion and Sale of Powdered Baby Milks in the Third World*, London: War on Want.

35 Penny Van Esterik (1989), pp. 7-8; Tehila Sasson (2016), "Milking the Third World? Humanitarianism, Capitalism, and the Moral Economy of the Nestlé Boycott", *American Historical Review* 121(4), pp. 1204-1210.

책임에 관한 범종교 센터(Inter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 ICCR), 조제분유행동연합(Infant Formula Action Coalition, INFAC), 영국의 유아우유 행동집단(Baby Milk Action Group), 스위스의 제네바유아수유연합(Geneva Infant Feeding Association) 등 적지 않은 단체가 운동에 동참했다.³⁶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 역시 분유 수유에 제동을 걸었다. 세계보건기구는 1974년 제27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모유 수유율의 세계적 감소가 조제분유와 같은 모유 대체품 판촉에서 비롯한 현상이라 진단하고, 회원국에 개선을 요구했다. 두 기구의 입장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더욱더 분명해졌다. 1979년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는 유아 영양 회의를 공동주최하고, 모유 수유 증진과 지원, 모유 대체품의 규제를 의결했다.³⁷ 의결된 성명과 권고문은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1981년 제34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모유 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이하 『규약』)으로 정리되고 발표되었다.³⁸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는 이러한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오늘날 통용되는 모유와 분유의 이항대립을 도입하였다. 『규약』에서 모유 수유는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이상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둘도 없는 방법”인 동시에, “어머니와 아기 둘 다의 건강을 위한 유일무이한 생물학적, 정서적 기본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선언되었다. 반면 조제분유를 포함한 모유 대체품은 모유보다 의학적으로 열등할 뿐 아니라, 모유 수유를 방

36 Penny Van Esterik (1989), pp. 8-9; Tehila Sasson (2016), pp. 1210-1217. 서순은 이러한 소비자 운동의 이면에 저소득국을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후견주의가 놓여 있음을 지적한다.

37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1981), *Joint WHO/UNICEF Meeting on Infant and Young Child Feeding, Geneva 9-12 October 1979: Statement, Recommendations, List of Participant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38 World Health Organization (1981), *International Code of Marketing of Breast-Milk Substitute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이는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다[세계보건기구(2009), 정유미 역, 『모유 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 서울: 대한모유수유의사회].

해하여 영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절하되었다. 이러한 이항대립을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는 각국 정부에게 모유 수유를 “보호하고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개발”하여 “모유 수유를 육성”할 것을 촉구했다.³⁹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 질서는 어떻게 한국으로 도입되었을까. 매개는 소비자 운동 단체였다. 분유의 가격과 품질 안정화에 열중했던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소비자 운동과 달리,⁴⁰ 1980년대의 소비자 운동은 국제 사회의 흐름에 따라 분유 수유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1983년에 출범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소시모)이 대표적이었다. 서구권의 여러 소비자 단체와 마찬가지로, 소시모에 모유 권장 운동이란 비윤리적인 기업 활동에 대항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다. 소시모의 창립을 주도한 김재옥(金在玉, 1946~)과 송보경(宋寶景, 1945~)은 당대의 모유 분유 논쟁에 촉각을 기울이며, 분유 문제를 분유 회사에 의한 정보 조작과 이에 따른 시장 왜곡의

39 세계보건기구(2009), pp. 13-14. 국제기구의 입장에서 모유 수유는 사업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방법이기도 했다. 유니세프는 1982년 저소득국 아동의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한 ‘아동 생존 혁명’(Child Survival Revolution) 운동을 시작하고, 그 수단으로 이른바 ‘GOBI’를 제시했다. 성장 관리(Growth Monitoring), 경구 수분 보충 요법(Oral Rehydration Therapy), 모유 수유(Breastfeeding), 예방 접종(Immunization)의 앞글자를 딴 이들 네 가지 방법은 모두 저소득국에서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저렴한 기술이었다[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1982),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1982-8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3-42]. 휴즈와 사전트가 지적하듯, 이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개인의 실천과 기술적 개입이 가능한 방식으로 문제를 축소하고 환원하려는 당대의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반영된 결과였다[Nancy Scheper-Hughes and Carolyn Sargent (1998), “Introduction”, *Small Wars: The Cultural Politics of Childhood* (eds. by Nancy Scheper-Hughes and Carolyn Sarg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2-7].

40 한국부인회, 대한YWCA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여러 여성 단체는 정부에 분유 가격의 조정을 요청하거나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한편, 직접 분유의 품질을 조사하기도 했다[「생필품값 억제 유지토록」, 『경향신문』, 1964년 1월 10일, 5면; 「가정경제보호회 소비자 가이드: 분유」, 『동아일보』, 1966년 8월 11일, 7면; 「생활 속에 뛰어들어 여성 활동: 각 단체 66년의 결산」, 『중앙일보』, 1966년 12월 22일, 5면; 서울YWCA(2002), 『서울YWCA 80년: YWCA 100년을 향하여』, 서울: 서울YWCA, pp. 147, 149].

결과로 바라보았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윤리적인 기업 활동을 제한하고, 여러 시민에게 모유 수유를 권장할 필요가 있었다.⁴¹

이를 위해 소시모는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가 권장하는 모유 권장 운동의 한국 지부 역할을 수행했다. 창립 첫해인 1983년부터 세계보건기구 아태사무소에서 모유 권장 사업 운영비 2만 달러를 지원받아 한국의 『규약』 이행 상황을 감시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 등의 추가 후원을 받아 모유 권장 세미나 등을 시작하기도 했다. 1986년에는 『규약』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마름질한 「분유 등 영유아 식품의 제조, 판매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작성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제출했다.⁴²

소시모의 활동은 1990년대에 들어서며 다양한 변화로 이어졌다. 소시모는 먼저 분유 산업의 무분별한 판촉에 제동을 걸었다. 1991년에는 남양유업, 매일유업, 파스퇴르유업 3사와 ‘분유 광고 금지 및 제품 포장 표시 변경에 관한 합의’를 체결했고, 1994년에는 같은 회사와 ‘모유 대체품의 무료 혹은 낮은 가격 공급 금지 합의식’을 시행하는 한편, 젓병, 젓꼭지 판매 회사와 광고 금지 합의에 조인하였다.⁴³ 더 나아가 소시모는 법적인 변화를 끌어내기도 했다. 1991년 보건사회부는 상기한 소시모의 법률안을 바탕으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조제분유에 관하여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⁴⁴

이에 더하여 소시모는 모유 수유의 걸림돌로 지목되던 의료계의 변화를 유도하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는 1991년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Baby-Friendly Hospital Initiative, BFHI)을 발족하고, 산모와

41 송보경(1988), 「소비자 주권론(Consumer's Sovereignty)에 대한 고찰」, 『여성연구논총』 4(1), p. 104.

42 송보경·김재옥(2003), 『한국 소비자운동: 안전성, 투명성, 지속성을 위한 20년』, 서울: 식탁, pp. 62, 273, 493-494.

43 송보경·김재옥(2003), pp. 267-284.

44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885호, 1991년 12월 28일 일부개정, 시행. 별표 12.

아기가 같은 방을 쓰는 모자동실을 권장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분만 직후 아기와 산모를 분리하는 구조가 모유 수유를 방해한다는 이유였다.⁴⁵ 소시모는 1992년 한국 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듬해부터 본격적인 운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유니세프의 일임 하에 보건사회부와 여러 의료인의 보조를 받아 전국 각지 병원 417개를 조사하였고, 1993년 4월 부산일신기독병원을 첫 번째 인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⁴⁶

소시모의 사업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물론 모유 수유를 홍보하는 소책자를 만들어 일선 병원에 배포하거나, '젓먹이는 엄마들의 모임'을 꾸리는 등 개인을 향한 사업이 전무하지는 않았다.⁴⁷ 그러나 소시모의 활동 대부분은 기업과 의료인을 규제하는 데 맞춰져 있었다. 이는 상기한 바 김재옥과 송보경이 분유 문제의 책임 소재가 일차적으로 분유 회사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미 시장이 왜곡된

45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는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와 스웨덴 국제개발청(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uthority, SIDA)의 후원 아래 이탈리아 이노첸티에서 열린 1990년의 회의에서 「모유 수유의 보호, 권장, 지지에 관한 이노첸티 선언」을 발표했다. 그리고 1991년, 「이노첸티 선언」과 『규약』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을 발족했다. 이듬해에는 모유수유기념주년을 설정하기도 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1990), *Innocenti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Promotion and Support of Breastfeeding, Breastfeeding in the 1990s: A Global Initiative*, Florence: WHO and UNICEF;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09), *Baby-Friendly Hospital Initiative: Revised, Updated and Expanded for Integrated Care*, Section 1: Background and Implementation, Geneva: WHO and UNICEF].

46 「병원들 모유 권장 외면, 주한 유니세프 조사」, 『동아일보』, 1992년 7월 30일, 15면;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첫 지정」, 『경향신문』, 1993년 4월 10일, 10면.

47 「젓먹이는 엄마 모임」, 『경향신문』, 1984년 3월 26일, 6면; 「“엄마 젓이 좋아요” 모유 권장 시민 캠페인」, 『동아일보』, 1984년 4월 4일, 7면. 당시 소시모는 세계보건기구의 『규약』과 상기한 「이노첸티 선언」을 번역하여 다음의 소책자로 발간하였다[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1990a), 『아기의 건강을 보호하자: 국제규약을 지키자』, 서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1990b), 『모유 수유: 보호, 지원, 장려』, 서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상황에서는 소비자 주권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따라서 소비자 운동은 무엇보다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논리였다.⁴⁸

이와 같은 소시모의 전략이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졌는지는 분명치 않다. 소시모가 기업과 의료인을 압박하여 적지 않은 변화를 끌어냈던 1990년대 초반 당시, 모유 수유율은 여전히 하락을 면치 못했다. 이는 소비자를 내버려 둔 전략의 한계 탓일 수도, 반대로 쉽사리 변하지 않는 사회의 완고함 탓일 수도 있었다.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서는 사태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소시모의 전략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여성을 겨냥한 새로운 흐름이 형성된 결과였다.

4. 모유 권장 운동의 변주: 모유 수유의 의료화와 상품화,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소시모를 중심으로 하던 모유 권장 운동은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동인은 주도권의 이전이었다. 유니세프 한국사무소는 1994년 한국위원회로 격상된 이후,⁴⁹ 소시모에 일임했던 모유 권장 운동을 직접 관할하기 시작했다. 1993년 11월부터 1994년 2월까지 진행되었던 ‘WHO 모유대체식품 규약에 대한 한국실태 조사’를 마지막으로, 유니세프와 소시모의 공동사업은 모두 종결되었다.⁵⁰ 소시모가 주도하던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 역시 유니세프의 단독 사업이 되었다.⁵¹

48 송보경(1998), pp. 99-109.

49 「유니세프 한국위, 수혜국서 공여국으로」, 『경향신문』, 1993년 12월 11일, 19면.

50 보고서는 다음에 실려 있다[송보경·김재욱(2003), pp. 279-282].

51 주도권의 이전 이후, 소시모는 1997년 ‘모유 수유 권장 잘하는 병원’이라는 별개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만 이는 일회성의 사업으로 종결되고 말았다[송보경·김재욱(2003), pp. 291-296].

유니세프와 함께 소시모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의료계였다. 이전까지만 해도 의료계는 모유 권장 운동에 미온적이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김승조(金丞兆, 1934~),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 강신명(姜信明, 1922~2006), 이근(李根, 1942~), 원광대학교 약학대학교 안영근(安榮根, 1931~) 등이 운동에 힘을 실었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격으로 소시모 모유권장위원회에 참여했을 따름이었다. 대한의학협회나 대한소아과학회 등 단체의 참여는 없었다. 모유 수유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의료계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였다. 대한소아과학회의 기관학회지 『소아과』의 경우, 창간호가 발간된 1958년부터 1990년까지 33년 동안 모유 권장을 표방한 논문은 모두 다섯 편뿐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의료계의 참여는 증가하기 시작했다. 1994년 7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주최한 세계모유수유 기념만찬은 상징적이었다. 대한의학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소아과학회 등 여러 의료인 단체가 대거 초대되었고, 지금까지 모유 권장 운동을 주도하던 소시모는 이들 의료인 단체와 동등한 자격으로 행사에 초청되었다.⁵²

더 나아가, 의료계는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 모유 권장 운동을 추진하기도 했다. 시작은 1995년 설립된 한국모유수유협회였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김혜숙(金惠淑, 1947~)이 주도했던 한국모유수유협회는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모유 수유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출”한다는 목표로 간호사 교육에 집중했다.⁵³ 대한간호협회 역시 모유 권장 운동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분유 회사의 우량아 대회 전략을 차용하여, 1995년부터 ‘건강한 모

52 「세계 모유수유주간 기념만찬 유니세프, 의학계 인사들 참석」, 『경향신문』, 1994년 7월 28일, 17면.

53 「모유수유 협회 내일 창립총회」, 『한겨레』, 1995년 2월 9일, 13면; 「엄마 젖 먹이기 운동 본격 착수」, 『조선일보』, 1995년 2월 7일, 25면; 「김혜숙 한국모유수유협회장 “모유 먹이기 확산에 앞장”」, 『경향신문』, 1995년 3월 2일, 17면.

유 수유아 선발대회'를 진행했다.⁵⁴ 2005년에는 소아과 의사 정유미의 주도로 대한모유수유 의사사회가, 2006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이근을 초대 회장으로 대한모유수유 학회가 창립되었다. 정유미가 소시모 모유권장 위원회 총무를 지낸 인물이고, 이근이 소시모와 협력하던 인물이라는 사실은 모유 권장 운동의 주도권 변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단면이었다. 소비자 단체가 주도하고 몇몇 의료인이 힘을 보태는 식으로 진행되던 운동은 이제 의료 전문가가 주도하는 운동으로 탈바꿈했다.⁵⁵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의료인 단체가 갑자기 모유 권장 운동에 참여한 동기는 무엇이였을까. 소시모로 대변되는 사회적 압력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1990년대 초반까지의 무관심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유력한 요인은 서구권 소아과학계의 입장 변화였다. 『규약』이 발표된 다음 해인 1982년,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는 일견 『규약』을 지지하는 듯한 성명서를 내어놓았다. 하나 실제 내용은 달랐다. 모유 수유를 하는 집단과 분유 수유를 하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유의 우월함을 통계적으로 확신할 수 없다는 단서가 따라붙었다. 이들에게 분유는 여전히 모유의 유력한 대안이었다.⁵⁶

그러나 모유 권장 운동이 바꾸어 놓은 국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소아과학계의 연구 경향은 조금씩 달라졌다. 분유 수유가 영아돌연사증후군, 제 1형 당뇨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발병과 연관하다는 연구가 하나둘씩 발표

54 「"엄마 젖으로 튼튼하게 컸어요"」, 『한겨레』, 1995년 9월 28일, 13면.

55 이근이 지난날의 모유 권장 운동을 짧게 정리하며,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에 대하여 “국내의 모유 수유 권장 사업으로는 최초로 실행되어 정부를 비롯한 관련 단체의 모유 수유 사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는 부분은 시사적이다. 이와 같은 서술을 통해 그는 소시모의 활동을 역사에서 털어낸다[김경아·신순문·이근(2005), 「UNICEF/WHO 개발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BFHI)의 효과 연구」, 『대한주산회지』 16-1, pp. 37-48].

56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1982), “The Promotion of Breast-Feeding: Policy Statement Based on Task Force Report”, *Pediatrics* 69(5), pp. 654-661.

되었고,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는 모유 수유가 지능지수와 시력, 언어 발달, 체중 관리 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줄을 이었다.⁵⁷ 결국 미국소아과 학회는 1997년 새로운 입장문을 내어놓으며, 모유 수유를 향한 완전한 지지를 선언하였다.⁵⁸

서구권의 변화는 한국에서도 반복되었다. 한국의 의학계는 해방 이후부터 서구권의 연구 조류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연구 여건이 허락하는 한 시류에 뒤처지지 않으려 노력했다.⁵⁹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대한소아과학회의 기관학회지 『소아과』에는 1990년부터 모유 수유의 우월함과 분유 수유의 문제를 지적하는 논문이 실리기 시작했다. 모유 수유가 감염병의 발병을 줄이는 한편, 분유 수유는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을 높인다는 등의 내용이었다.⁶⁰ 모유 수유에 대한 실태 조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85년을 끝으로 수유 실태를 조사하지 않던 대한소아과학회는 1994년부터 거의 매

57 Linda M. Blum (1999), p. 50.

58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1997), “Breastfeeding and the Use of Human Milk”, *Pediatrics* 100(6), pp. 1035-1039.

59 한국 의학계의 서구 지향성은 1950년대의 대규모 연수에서 비롯한다. 한국의 여러 엘리트 의학자는 1950년대를 거치며 미국중화의학기금회(美國中華醫學基金會, China Medical Board)와 미네소타 프로젝트(Minnesota Project) 등의 지원 아래, 유학이나 연수의 형태로 미국을 위시한 서구권의 의료 체계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한국의 의료 체계와 의학 교육 및 연구 체계를 재설계하고자 했다[이왕준(2006),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한국 의학교육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여인석(2015), 「세브란스를 중심으로 본 CMB의 한국의학 재건사업」, 『연세의사학』 18(1), pp. 175-196].

60 1990년 전반기에 발표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최영륜·황태주·마재숙 등(1990), 「수유 방법에 따른 정산 신생아의 후비점막 세균상」, 『소아과』 33(4), pp. 472-480; 이종산·조수영·황평한 등(1990), 「연령증가 및 수유 시작시기에 따른 β -Lactoglobulin 특이 면역글로부린의 변동」, 『소아과』 33(12), pp. 1639-1646; 전정자, 정수암, 정귀영 등(1994), 「영아기에 있어서 모유영양과 하기도 감염과의 관계에 대하여」, 『소아과』 37(6), pp. 816-821; 정진경, 강인남, 신동주 등(1990), 「감염병에 대한 모유영양의 방어 효과」, 『소아과』 37(7), pp. 906-912. 1990년 이전에도 모유의 우월함을 주장하는 논문이 한 편 발표되었으나, 이는 당시에 이미 소시모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던 이근 교수진의 연구였다.

년, 모유 수유 실태 조사와 모유 수유 실패 요인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⁶¹

소아과학계의 이러한 변화를 소시모의 활동에 따른 뒤늦은 반응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 대부분이 달라진 사회적 여건보다는 서구 소아과학계의 변화한 학술 조류를 연구의 배경으로 언급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변화의 계기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요컨대 한국 의학계는 소시모로 대변되는 한국 내부의 흐름보다는 서구 소아과학계의 입장 변화에 반응하여 모유 수유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이에 따라 모유 권장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시작된 의료인의 모유 권장 운동 참여는 주도권의 변화를 넘어, 모유 수유의 의미 자체를 뒤바꾸어 놓았다. 소시모가 주도하던 운동은 다분히 회고적인 성격을 보였다. 상기한 바와 같이 송보경은 분유 회사가 정보와 시장을 왜곡함에 따라 분유 수유가 증가하였다고 진단하였고, 이에 따라 소시모의 활동은 잘못된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어머니 젖을 먹으며 성장해 왔”던 과거로 상황을 되돌리는 데 집중되었다.⁶²

의료인 단체의 모유 권장 운동은 달랐다. 이들은 소시모를 비롯한 소비자 단체와 달리 모유 수유를 의학적 지도의 대상으로 상정했다. 모유 수유를 향한 미국소아과학회의 지지는 미묘했다. 상기한 1997년의 입장문에는 모유 수유의 자연성과 우월함에 대한 인정과 함께, 제대로 된 수유를 위해서는 의료인의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이 함께 실렸다. 수유 행위는 어디까지나 아이의 영양을 위한 의학적인 행위이며, 따라서 의료인에게 정확한

61 2000년까지로 한정하면 다음과 같은 논문이 대표적이다. 대한소아과학회 영양위원회(1994), 「수유 실태 조사」, 『소아과』 37(12), pp. 1657-1668; 대한소아과학회 영양위원회(1997), 「모유수유 실패요인에 대한 연구」, 『소아과』 40(10), pp. 1336-1346; 성윤아·안주영·이화연 등(1998), 「모유수유 실태에 관한 조사」, 『소아과』 41(4), pp. 444-450; 정지혜·이근(1999), 「모유수유에 대한 산모의 의식에 대한 조사」, 『소아과』 42(8), pp. 1050-1055; 박경배·오병래·장영택(1999), 「전주지역의 모유수유 실태 조사」, 『소아과』 42(5), pp. 614-620.

62 송보경(1988), p. 103.

정보를 교육받아야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한국의 의료인 단체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국모유수유협회와 대한모유수유의사회 등이 간호사와 의사를 통한 모유 수유 교육을 강조했다. 점에서도 보이듯, 이들 단체 역시 모유 수유를 자연적이지만 의료인의 도움 없이는 실천하기 힘든 활동으로 다시 정의하려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모유 권장 운동은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라 할 수 없었다. 의료 전문가가 여성으로부터 수유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와 독점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는 오히려 의료화된 모유 수유, 의료화된 모성, 의료화된 자연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모유 수유의 의료화는 곧 상품화로 이어졌다. 모유 수유의 성공을 위해 전문가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관리와 개입의 시장화로 귀결된 결과였다. 새로운 상품의 개발과 유행을 견인한 동력은 산후 관리 서비스의 성장이었다. 핵가족의 형태가 확산하면서, 산후 관리 서비스를 향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1990년을 전후로 산후조리도우미가 등장하였다. 간병인 복지회, 서울YWCA, 주부클럽연합회, 태화복지관 등의 기관에서 소정의 훈련을 받은 인력이 가정에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형식이었다. 서비스는 몇 달 전부터 예약하지 않으면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⁶³ 산후조리도우미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도 덩달아 늘어났다. 부업을 원했던 많은 여성이 훈련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았다.⁶⁴

산후조리라는 새로운 상품이 유행하면서, 어떤 이들은 가정 방문이 아닌 시설 입소 형태의 서비스를 내어놓았다. 산후조리원의 등장이었다.

63 「간병인, 핵가족화 따라 수요 급증: 출산간병의 경우 1, 2개월 전 예약 실정」, 『경향신문』, 1990년 7월 25일, 9면; 「가족 대신 산후조리, 육아 뒷바라지: 산모, 신생아 관리인 인기」, 『동아일보』, 1995년 5월 17일, 17면.

64 「환자 불편 덜어주는 손: 주부 부업으로 인기, '산모 도우미, 간병인」, 『경향신문』, 1997년 5월 1일, 28면; 「어깨 무거워진 주부들 '부업거리 어디 없나요」, 『한겨레』, 1998년 3월 18일, 9면.

1996년 인천 남동구에 설립된 성모 산후조리원을 시작으로, 산후조리원은 빠르게 증가했다. 사임당 산후조리원으로 개칭한 성모 산후조리원은 곧 서울과 인천, 성남, 순천 등에 체인점을 두었고,⁶⁵ 사임당을 따라 엄마손, 마미스, M&B 등 여러 체인 산후조리원이 등장했다. 2001년 3월 1일 당시 전국 산후조리원은 최소 304개로 추정되었다.⁶⁶ 5년 만의 성장이었다.

이렇게 늘어난 산후조리원은 산모를 유치하기 위하여 피부 관리, 체형 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⁶⁷ 모유 수유 교육과 유방 관리는 그중에서도 핵심에 해당했다. 십여 년의 모유 권장 운동으로 조성된 모유 수유를 향한 우호적인 시선은 새로운 상품의 가능성을 의미했다. 산후조리원에 앞서 등장한 산후조리도우미 대부분은 이미 모유 수유 교육과 유방 관리 등을 핵심 서비스로 내세우고 있었다.⁶⁸

이미 시장이 개척된 상황에서, 산후조리원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 성모 산후조리원이 등장하고 5년이 지난 200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가운데 모유 수유 교육과 유방 관리를 시행하는 곳은 각각 96.2%와 87.7%에 달했다. 실제로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 가운데 이들 상품을 이용한 비율도 67.2%와 87.7% 수준이었다.⁶⁹ 이 시장은 점점 커져, 오케타니(桶谷) 유방관리법 등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한 최적의 유방 상태를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업

65 「산후조리 원벽 ‘진정 생각 안 나오」, 『경향신문』, 1999년 8월 2일, 27면; 「산후조리원 첫 설립 김계화 씨, 『한국일보』, 1999년 8월 9일, 19면; 「사임당 산후조리원 광고, 『조선일보』, 1999년 1월 13일, 32면.

66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설립된 산후조리원이 통계에서 누락된 탓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산후조리원 운영 및 이용자 관리현황과 제도화 방안』,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4, 46-47].

67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pp. 78-79.

68 「산모, 신생아 전문 도우미 인기, 『동아일보』, 1994년 11월 14일, 19면; 「환자 불편 덜어 주는 손: 주부 부업으로 인기, ‘산모 도우미, 간병인」, 『경향신문』, 1997년 5월 1일, 28면.

69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pp. 78-79.

체가 따로 등장할 정도였다.⁷⁰

이처럼 의료인 단체와 산후조리원이 모유를 권장하는 새로운 주요 행위자로 부상하면서, 모유 권장 운동은 모유 수유의 의료화와 상품화를 촉진하는 매개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과연 옳은 것일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전 시기의 소비자 운동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흐름이 개인의 삶에 더욱 밀착해있다는 점이다. 시설 분만과 산후조리원에서의 몸조리가 일상화된 한국의 상황에서, 의료화되고 상품화된 수유 담론은 쉬이 확산하였다. 그리고 2000년 이후, 모유 수유율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5. 나가는 말

한국의 모유 권장 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지금까지 살펴본바, 이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소비자 운동의 성격을 띠던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분유 수유를 향한 시선은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대항문화의 자장 아래 분유 산업을 향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는 각국 정부에 이상적이고 자연적인 영양인 모유 수유의 권장을 권고했다. 수많은 소비자 단체도 여기에 힘을 실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 질서는 소시모를 매개로 한국에 유입되었다. 소시모는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의 한국 지부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과 의료계를 압박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모유 권장 운동이 의료화되고 상품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기간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모유 수유의 걸림돌로 지목되

70 조정숙(2015), 「인터뷰: 조정숙 오케타니 모유육아상담실 대표원장」, 『Fortune Korea』, 8월호, pp. 142-145.

던 여러 의료인 단체는 이제 서구 의학계의 입장 변화에 발맞추어 모유 권장 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모유 수유를 의학적 지도와 관리의 대상으로 재규정하고, 이로써 의료인의 개입을 정당화하였다. 모유 수유의 의료화는 상품화로 이어지기도 했다. 1996년 한국에 처음 등장하여 급격히 성장한 산후조리원은 관리와 개입의 필요성을 전유하여 모유 수유 교육과 유방 관리라는 새로운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촉에 활용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모유 수유율의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소시모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당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에서도 보이듯, 운동은 변화의 한 가지 계기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압력에 따라 분유가 아닌 모유를 수유하는 이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결심에도 불구하고 모유 수유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사회적 압력에 외려 반발감을 느끼기도 한다. 결국 이와 같은 다층적인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는 이 논문이 조망하지 못한 또 다른 절반, 즉 수유의 주체인 여성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자료

-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가족계획연구원(1979), 『1978년 가족계획 및 출산력 실태조사』,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가족계획연구원(1978), 『197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계획 평가조사』,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경제기획원·가족계획연구원(1977), 『1974년 한국출산력조사: 일차보고서』, 서울: 경제기획원).
 고갑석·데이비드 스미스(1970), 『1968년도 한국 부인의 출산력 및 가족계획 실태조사 보고』, 서울: 국립가족계획연구소.
 대한소아과학회 영양위원회(1997), 「모유수유 실패요인에 대한 연구」, 『소아과』 40(10), pp. 1336-1346.

- 대한소아과학회 영양위원회(1994), 「수유 실태 조사」, 『소아과』 37(12), pp. 1657-1668.
- 박경배·오병래·장영택(1999), 「전주지역의 모유수유 실태 조사」, 『소아과』 42(5), pp. 614-620.
- 박완서(2015), 「버스 속에서」, 『나의 만년필』(박완서 산문집 2), 광주: 문학동네, pp. 22-27.
- 성윤아·안주영·이화연 등(1998), 「모유수유 실태에 관한 조사」, 『소아과』 41(4), pp. 444-450.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1990a), 『아기의 건강을 보호하자: 국제규약을 지키자』, 서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1990b), 『모유 수유: 보호, 지원, 장려』, 서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 송보경(1988), 「소비자 주권론(Consumer's Sovereignty)에 대한 고찰」, 『여성연구논총』 4(1), pp. 99-109.
- 신재철·김영찬·홍성봉(1989), 「한국의 분만양상에 관한 고찰(III): 분만장소 및 그 개조자의 변천」, 『대한산부회지』 32(5), pp. 599-603.
- 윤병해·박철구·김중식 등(1971), 「국산분유제품에 대한 임상적 관찰」, 『소아과』 14(8), pp. 483-488.
- 이동환·윤종구·고광욱(1978), 「매일분유 G의 만삭신생아에 대한 수유 성적」, 『소아과』 21(4), pp. 32-37.
- 이종산·조수영·황평한 등(1990), 「연령증가 및 수유 시작시기에 따른 β -Lactoglobulin 특이 면역글로부린의 변동」, 『소아과』 33(12), pp. 1639-1646.
- 이현숙·권순자(1969), 「국산우유제품에 의한 영양가 및 발육에 대한 임상적 연구」, 『소아과』 12(2), pp. 99-104.
- 전정자·정수암·정귀영 등(1994), 「영아기에 있어서 모유영양과 하기도 감염과의 관계에 대하여」, 『소아과』, 37(6), pp. 816-821.
- 정용운·김효섭·이병철 등(1979), 「매일분유 G-80의 저출생체중아에 대한 수유성적」, 『소아과』 22(11), pp. 26-30.
- 정지혜·이근(1999), 「모유수유에 대한 산모의 의식에 대한 조사」, 『소아과』 42(8), pp. 1050-1055.
- 정진경·강인남·신동주 등(1990), 「감염병에 대한 모유영양의 방어 효과」, 『소아과』 37(7), pp. 906-912.
- 조정숙(2015), 「인터뷰: 조정숙 오케타니 모유육아상담실 대표원장」, 『Fortune Korea』 8월호, pp. 142-145.
- 최영륜·황태주·마재숙 등(1990), 「수유 방법에 따른 정산 신생아의 후비점막 세균상」, 『소아과』 33(4), pp. 472-480.
- 하정훈(2021), 『뽀뽀뽀 119 소아과』, 12판, 서울: 유니책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9), 『한국농정50년사』, 2권, 서울: 농림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서울: 한

- 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서울: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산후조리원 운영 및 이용자 관리현황과 제도화 방안』, 보건 복지부 용역보고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7),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보고』,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9),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서울: 한국인구 보건연구원.
-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5),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서울: 한국인구보건 연구원.
-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2), 『1982년 전국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서울: 한국인구보건연구 원.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1997), "Breastfeeding and the Use of Human Milk", *Pediatrics* 100(6), pp. 1035-1039.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1982), "The Promotion of Breast-Feeding: Policy Statement Based on Task Force Report", *Pediatrics* 69(5), pp. 654-661.
- Family Health International (1988), "Consensus Statement: Breastfeeding as a Family Planning Method", *Lancet* 19(2), pp. 1204-1205.
- Muller, Mike (1974), *The Baby Killer: A War on Want Investigation into the Promotion and Sale of Powdered Baby Milks in the Third World*, London: War on Want.
-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1982),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1982-8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orld Health Organization (1981), *International Code of Marketing of Breast-Milk Substitute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2009), 정유미 역, 『모유 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 서울: 대한모유수유의사회].
-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09), *Baby-Friendly Hospital Initiative: Revised, Updated and Expanded for Integrated Care*, Section 1: Background and Implementation, Geneva: WHO and UNICEF.
-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1990), *Innocenti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Promotion and Support of Breastfeeding, Breastfeeding in the 1990s: A Global Initiative*, Florence: WHO and UNICEF.
-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1981), *Joint WHO/UNICEF Meeting on Infant and Young Child Feeding, Geneva 9-12 October*

1979: *Statement, Recommendations, List of Participant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논저

- 김경아·신손문·이근(2005), 「UNICEF/WHO 개발 아기에겐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BFHI)의 효과 연구」, 『대한주산회지』 16(1), pp. 37-48.
- 송보경·김재옥(2003), 『한국 소비자운동: 안전성, 투명성, 지속성을 위한 20년』, 서울: 석탑.
- 여인석(2015), 「세브란스를 중심으로 본 CMB의 한국의학 재건사업」, 『연세의사학』 18(1), pp. 175-196.
- 이은희(2021a), 「해방 이후 구호분유의 쇄도와 육아용 분유로의 전용(1945~1965)」, 『학림』 47, pp. 275-308.
- 이은희(2021b), 「박정희 시대 육아용 분유의 국산화」, 『동방학지』 196, pp. 447-487.
- 이은희(2019), 「일제강점기 우량아 양육과 우유, 연유, 분유의 상륙」, 『경제사학』 43(3), pp. 399-436.
- 이왕준(2006),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한국 의학교육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진(2012), 「우량아 선발 대회와 운동회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아동과 아동기 담론」, 『아동교육』 21(2), pp. 267-280.
- 장하진·장미경·신경아·오정진(2001), 『근로 여성 50년사의 정리와 평가』,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Apple, Rima D. (1987), *Mothers & Medicine: A Social History of Infant Feeding, 1890-1950*, Wisconsi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Blum, Linda M. (1999), *At the Breast: Ideologies of Breastfeeding and Motherhood in the Contemporary United States*, Boston: Beacon.
- Dobbing, John (1988), *Infant Feeding: Anatomy of a Controversy, 1973-1984*, London: Springer.
- Saks, Mike (2003), "Medicine and the Counter Culture", *Companion to Medicine in the Twentieth Century* (eds. by Roger Cooter and John Pickstone), London: Routledge, pp. 113-123.
- Sasson, Tehila (2016), "Milking the Third World? Humanitarianism, Capitalism, and the Moral Economy of the Nestlé Boycott", *American Historical Review* 121(4), pp. 1196-1224.
- Scheper-Hughes, Nancy and Carolyn Sargent (1998), "Introduction", *Small Wars: The Cultural Politics of Childhood* (eds. by Nancy Scheper-Hughes and Carolyn Sarg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33.
- Van Esterik, Penny (2013), "The Politics of Breastfeeding: An Advocacy Update", *Food and Culture: A Reader* (eds. by Carole Counihan and Penny Van Esterik), 3rd ed.,

London: Routledge, pp. 510-530.

Van Esterik, Penny (1989), *Beyond the Breast-Bottle Controversy*,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Wolf, Joan B. (2011), *Is Breast Best?: Taking on the Breastfeeding Experts and the New High Stakes of Motherhood*,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원고 접수일: 2022년 1월 3일, 심사 완료일: 2022년 2월 8일, 게재 확정일: 2022년 2월 8일

ABSTRACT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Breastfeeding Promotion in Korea

Park, Seungmann*

From Consumer Movement to the Medium of
Medicalization and Commodification

Infant feeding is roughly divided into breastfeeding and formula feeding depending on what is fed, and there exists a binary opposition between breast milk and powdered formula. It is the perception that the former is natural and nutritious, and the latter is artificial and relatively nutrient-poor. However, in Korea, this perception appeared as early as the 1980s and as late as the 2000s, and before that, many people trusted powdered formulas more. Regardless of the truth value of the binary opposi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historical process in which the perception surrounding breast milk and powdered formula has been constructed.

This article focuses on breastfeeding promotion in Korea from the 1980s to the 2000s, which gave impetus to this change, and traces the historical process developed in Korea. The key arguments are as follows. First, breastfeeding promotion in Korea originated from international and

*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movement in the 1970s and 1980s, and the Western medical professionals' support for breastfeeding in the 1990s. And then, it was mediated to Korea by consumer organizations and medical professionals in Korea. Second, the focus of breastfeeding promotion shifted from consumer protection to emphasis on the necessity of medical management, as in the West, and later the movement became a medium for the commodification of breastfeeding by postpartum care centers.

Keywords Breastfeeding Promotion, Breast Milk, Powdered Milk, International Organizati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Medicalization, Commodification

